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후보 3명 저울질
- CNN Business: 연준, 금리 인하 가을로 연기할 가능성 높아
- WSJ: 월가에서 인플레 기대감 상승하고 있다

[미국 금융]
- CNBC: 엔비디아 주도의 AI 반등으로 2주간 침체된 증시 반등

[전기차]
- WSJ: 전기차 판매 식어...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 급증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FedEx와 Amazon, 파트너십 논의 … 반품 경쟁 심화 탓
- Bloomberg: 대한항공, 에어버스 A350 20대 계약 체결 임박
- WSJ: AI 기술 없는 기술직 구직자, 낮은 연봉과 적은 역할 직면
- Bloomberg: AI 배제한 Apple, 고성장 기술주보다는 '코카콜라'에 가까워
- CNBC: United 항공 CEO, 고객 안심시키려 노력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Trump Economic Advisers Float Three Names for Fed Chair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후보 3명 저울질

-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자문의원들은 지난주 플로리다 마라라고 트럼프 거주지에서 연준을 이끌 차기 후보자들의 명단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 후보자 중에 Kevin Warsh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제 정책 자문위원으로 후에 연준 이사로 근무했다. Kevin Hassett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경제 자문 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Arthur Laffer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경제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공급 주도의 이론가 중 한명으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안을 만든 인물이다.

- 트럼프는 아직 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파월 의장은 임기는 2026년까지다.

WSJ 기사

CNN Business: Presidential election or not, the Fed will cut interest rates in the fall if it must, economists say
연준, 금리 인하 가을로 연기할 가능성 높아

- 두 달 전만 해도 지난 23년간 가장 높게 금리를 올린 연준이 금리를 곧 인하할 것으로 추정했었다.
- 그러나 실망스런 인플레 수치로 투자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경제 지표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경우 미국 대선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올해 가을로 연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가을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WSJ: Inflation Expectations Are Rising on Wall Street
월가에서 인플레 기대감 상승하고 있다

- 현재 월가는 인플레가 둔화할 것이라는 확신이 식고 있다.
- 트레이터들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된 스왑계약에 따라 향후 5년간 평균 인플레가 2.45%가 되는데 베팅하고 있다.
-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사상 최고치를 보였던 S&P 500지수의 랠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 투자자들은 이번 주 수요일 연준의 금리 결정과 경제 전망에 대한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CNBC: Stocks rebound after two weeks of losses as Nvidia-led AI rally resumes: Live updates
엔비디아 주도의 AI 반등으로 2주간 침체된 증시 반등

- 월요일 증가 엔비디아의 상승에 힘입어 상승세다.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이번 주 연준의 통화정책 가이드라인을 주시할 예정이다.
- 다우존스는 1.1% 상승한 5,173.59로 상승 중이며 나스닥도 1.66% 오른 16,237, 64를 기록 중이다.
- 엔비디아는 이 회사의 인공지능 관련 컨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3.34% 상승한 9백8달러 88센트를 기록 중이다.
- 애플이 자사의 아이폰에 알파벳의 Gemini AI를 탑재하는 것에 양측이 협의한다고 보도되면서 알파벳은 7% 정도 주가가 상승 중이다.

CNBC 기사

[전기차]

WSJ: As Electric-Vehicle Shoppers Hesitate, Hybrid Sales Surge
전기차 판매 식어...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 급증

- 한때 틈새시장으로 보였던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 모델이 되었다. 가스 엔진과 배터리 모터를 합쳐져 연비를 높인 하이브리드는 도요타가 20여년전 선보인 이래 미국 시장에서 작지만 꾸준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 최근에 이들 모델은 테슬라에 도전하기 위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뒷전으로 물러났다.
- 그러나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은 까다로워진 배기가스 배출 요건을 충족하고 경쟁 우위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FedEx and Amazon Discussed Partnership as Competition for Returning Packages Intensifies
FedEx와 Amazon, 파트너십 논의 … 반품 경쟁 심화 탓

- 페덱스와 아마존이 함께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
-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두 기업은, 페덱스가 소매점에서 아마존 반품을 수거하고 배송 사업 관련 지분을 할당받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아마존은 매년 수백만 건의 반품 처리를 위해 페덱스와 United Parcel Service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왔다.
- 두 기업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업계 침체 속 택배 물량을 늘리고자 하는 페덱스와 고객의 반품 경험을 향상하고자 하는 아마존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WSJ 기사

Bloomberg: Korean Air Nears Deal for About 20 Airbus A350 Widebody Jets
대한항공, 에어버스 A350 20대 계약 체결 임박

-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대형기 주문이 임박한 상황이다. 아시아나와의 합병 이후 항공기 간소화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사는 A350을 대략 20개 구매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양사의 합의가 발표될 수 있지만, 오는 3월 21일에 열릴 이사회에 따라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의 A321neo 항공기 추가 도입도 검토하는 중이다.

Bloomberg 기사

WSJ: Tech Job Seekers Without AI Skills Face a New Reality: Lower Salaries and Fewer Roles
AI 기술 없는 기술직 구직자, 낮은 연봉과 적은 역할 직면

- AI 기술의 발전이 고연봉과 안정된 수요에 익숙한 기술직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국면을 안겨주고 있다. AI를 배울 것, 그리고 몇 년 전과 동일한 연봉을 기대하지 말 것이라는 점이다.
- Janco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몇 달 사이 통신, 기업 시스템 관리, 초급 IT 관련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 과학 분야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증가했다. 특히 IT 직종 근로자 평균 보수는 약 10만 달러로, 지속적인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Janulaiti는 AI 기술 부족과 급여조건 불일치로 인해 올해 IT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 것이라 설명했으며, 구체적으로는 2024년 IT 고용 시장이 2만~3만여 개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WSJ 기사

Bloomberg: Apple Without AI Looks More Like Coca-Cola Than High-Growth Tech
AI 배제한 Apple, 고성장 기술주보다는 '코카콜라'에 가까워

- 지난 20년 동안 애플만큼 주식시장의 가능성을 잘 구현한 기업은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애플은 빛이 사라지기 시작한 모습이다. AI는 현재 테크업계의 화두이기 때문.
- 애플의 투자자들은 곤경에 처했다. 매출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주가는 나스닥100지수 대비 16%P 하락했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크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여전히 애플이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는 있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속도로 증가할지는 미지수이다.
- 애플 경영진들은 성장 회복을 위한 AI 관련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전망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Bloomberg 기사

CNBC: United Airlines CEO tries to reassure customers after string of flight problems
United 항공 CEO, 고객 안심시키려 노력

- 월요일 유나이티드 항공 CEO Scott Kirby는 최근 몇 주간 일련의 비행 문제 발생 이후, 항공사의 안전에 대해 고객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번 달에는 일본행 보잉 777 항공기 중 한 대의 타이어가 이륙 직후에 떨어져 샌프란시스코 공항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하는 사고가 있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금요일 오리건에 착륙한 이후 구형 보잉 737의 비행기 패널이 사라진 것이 발견됐다.
- 미연방항공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Kirby는 “모두 관련 없다”면서도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직원에게 안전 교육과 절차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CNBC 기사

[보고서]

미 채권투자자들, '고금리 장기화'에 굴복…국채금리 급등

투자자들 '연준 정책 방향' 파악 위해 소비재 주가 주목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믿었던 미 채권투자자들이 고금리 장기화라는 현실과 불투명한 시장 전망에 고통스럽게 굴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재 기업 주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경제지표들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해 올해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는 예상 시점을 뒤로 미루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